

# 현대중국어 비대격구문과 피동구문의 목적어 출현현상에 대한 소고

— “王冕死了父親”과 “張三被殺了父親”을 중심으로\*

金仁順\*\*

<목 차>

1. 들어가는 말
2. 기존 분석 재고
  - 2.1 NP-이동 가설
  - 2.2 기저생성 가설
3. 기능범주 분석
  - 3.1 경동사 가설
  - 3.2 경동사 가설 적용 분석
4. 맺는 말

## 1. 들어가는 말

“王冕死了父親”과 “張三被殺了父親”과 같은 두 구문은 중국어에 출현하는 특이한 언어현상일 뿐만 아니라, 중국어를 학습하는 한국인에게도 참으로 독특한 언어형식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들을 선형구조(linearity)로 분석해 보면, ‘王冕’과 ‘張三’은 주어, ‘死’와 ‘被殺’은 동사, ‘父親’은 목적어이며, 첫 번째 문장은 능동문, 두 번째 문장은 피동문<sup>1)</sup>이다. 이렇게 선형구조로 살펴보면, ‘王冕’과 ‘張

三’이 이들 문장에서의 의미상의 주어인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王冕’과 ‘張三’은 단지 ‘父親’의 죽음을 경험하는 대상일 뿐이며, 실제로 죽는 사람은 ‘父親’인 것이다. 이처럼 이 두 가지 구문은 구조와 의미상의 불일치로 인해 지금까지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아 왔다.

논항구조 측면에서 살펴보면, 첫 번째 문장에서 ‘死’는 자동사<sup>2)</sup>로서 일반적으로 대격을 부여하는 문법적 능력이 없기 때문에 동사 뒤에 목적어가 출현하기 어렵다.<sup>3)</sup> 또한 두 번째 문장 역시 피동문의 기제에 의해 동사의 격 할당 능력이 흡수되어, 논리 목적어 NP에 구조격을 부여할 수 없다. 하지만, 이러한 이론적 분석의 예상과는 달리, 위와 같은 자동사구문과 피동구문에 실제로 목적어 ‘父親’이 출현하고 있다. 왜 대격을 부여할 수 없는 이런 구문들에 목적어가 출현하는 것일까? 이러한 현상에 대해 지금까지 많은 이론적 분석이 시도되었는데, 그 중 NP-이동(NP-movement) 가설, 기저생성(base-generated) 가설, Huang(2007)의 연구가 비교적 주류를 이룬다고 생각한다.

기존 분석에서는 이 두 가지 구문이 주로 NP-이동의 일종인 소유자 인상 이동(possessor raising movement)으로 설명되었다. 하지만 필자는 2장 1절에서 徐傑(1999)와 이지현(2006)을 통해 NP-이동가설에 의한 분석이 격이론(Case theory)에 위배됨을 보여줄 것이다. 2장 2절에서는 鄧思穎(2004), Huang(1999), 朱行帆(2005), 黃正德(2007, 2008)의 분석을 통해 이 두 구문에 출현하는 주어 기저생성되고, 경험자 의미역을 부여받게 되는 근거를 제시할 것이다. 3장에서

\*\* 고려대학교 중일어문학과 박사과정 수료.

- 1) 중국어 생성문법학자들의 분석에 의하면, 피동문은 크게 ‘被’ 뒤에 행위자가 출현하는 지의 여부에 따라 장거리 피동문(Long-distance Passives)과 단거리 피동문(Short-distance Passives)으로 나뉜다. 본고에서 토론하고자 하는 보류목적어 현상은 사실 장거리 피동문에서도 다수 출현하고 있지만(張三被土匪殺了父親, 橘子被他剝了皮), 능동문, 특히 비대격구문과 피동구문에서 출현하는 보류목적어 현상을 효과적으로 비교, 대조하여 생성방법을 도출해 내기 위해, 단거리 피동문만을 분석대상으로 삼음을 밝힌다.
- 2) 본고에서는 Perlmutter(1978)의 능격 가설(Ergative Hypothesis)에 따라, 자동사를 비대격 동사(unaccusative verbs)와 비능격 동사(unergative verbs)로 나누어 논지를 전개해 나가려고 한다.
- 3) 실제로는 “死了一個人”이 출현하기도 한다.

\* 본 논문은 2009년도 BK21 고려대학교 중일어문학과교육연구단의 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는 2장 2절의 내용 및 기능범주(functional category)의 일종인 경동사(light verb) 가설을 토대로 서로 다른 구문인 “王冕死了父親”과 “張三被殺了父親”이 실제로는 동일한 문법기제에 의해 생성되고, 이러한 생성과정을 통해 목적어 출현 현상도 해결할 수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 2. 기존 분석 재고

### 2.1 NP-이동 가설<sup>4)</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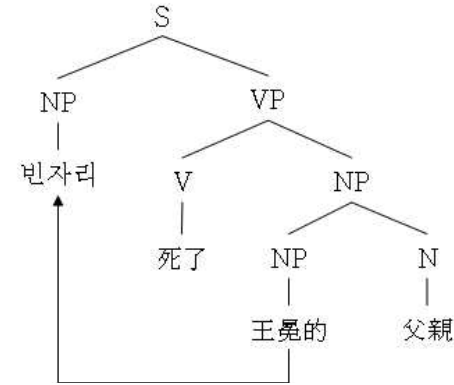
변형생성문법이 규칙중심의 이론에서 원리중심의 이론으로 전환되면서 피동문의 기제가 피동구문뿐만 아니라 비대격구문(unaccusative construction), 인상구문(raising construction) 등에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일반화된 규칙인 NP-이동이라는 기존 입장을 배경으로 많은 언어 현상들이 NP-이동 규칙으로 통합되어 설명되어 왔다.

“王冕死了父親”과 “張三被殺了父親” 두 구문 역시 NP-이동으로 설명이 가능한데, 徐傑(1999)와 이지현(2006)은 ‘王冕’과 ‘父親’, ‘張三’과 ‘父親’ 사이에 소유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고 소유자 인상 이동으로 해석을 시도하였다.

徐傑(1999)은 “王冕死了父親”과 “張三被殺了父親”을 각각 領主屬賓句<sup>5)</sup>와 보류목적어(retained object)<sup>6)</sup>를 가진 피동문이라고 지칭하였다.<sup>7)</sup> 이들의 공통점

- 4) NP-이동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 첫째, 격부여(Case assignment)되지 않는 위치에서 격부여되는 위치로 이동이 일어나고, 이 이동은 의무적이다.
  - 둘째, 의미역 위치(θ-position)에서 비의미역 위치(θ'-position)로 이동된다.
  - 셋째, IP의 지정어(specifier) 위치 (즉 주어 위치)로 이동된다.
- NP-이동의 기작지는 의미역이 부여되지 않는 NP의 위치, 즉 주어 위치로 한정되며, 이와 같이 NP-이동의 특징은 격어과, 의미역준거 등의 제 원리의 상호작용에 의해 설명된다. (原口庄輔·中村捷 1992/1998:477~479)
- 5) 領主屬賓句는 목적어를 가진 자동사구문에 해당한다.
- 6) 중국어에서는 능동문에서 하나의 논리목적어를 구성하는 NP의 일부분만이 피동문의

을 바탕으로 이 두 구문의 심층구조를 “死了王冕的父親”과 “被殺了張三的父親”이라고 설정한다. 소유자 ‘王冕’과 ‘張三’은 동사 ‘死’와 ‘殺’ 뒤에 있는 심층목적어의 한정어 위치로부터 이동하여 주어 위치에 놓이는데 그는 이 현상을 소유자 인상 이동으로 설명하였다. “王冕死了父親”의 이동현상을 수형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sup>8)</sup>



주어가 되고 일부는 남아 있을 경우 이때 남아있는 성분을 보류목적어라고 한다. 그런데 이러한 보류목적어는 피동문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목적어를 가지는 자동사구문이나 일부 把자구에서도 나타난다.

- 7) 徐傑(1999:23)은 이 두 구문이 다음과 같이 공통된 문법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 첫째, 동사 전후의 두 개의 명사성 성분의 의미관계는 일반적으로 광의의 ‘소유/종속’ 관계만 가능할 뿐이다.
  - 둘째, 동사 뒤의 명사성 성분은 동사 뒤에 출현할 수도 있고(“王冕死了父親”과 “張三被殺了父親”), 동사 앞에 출현할 수도 있다(“王冕的父親死了”와 “張三的父親被殺了”). 이 두 구문은 완전히 동일한 심층구조를 가진 두 가지 표층형식이다.
  - 셋째, 목적어는 동사의 목적어 위치에 놓일 수 있지(“王冕死了父親”과 “張三被殺了父親”), ‘주-술-목’구조의 목적어처럼 주어 앞으로 인상될 수 없다(\* 父親王冕死了과 \* 父親張三被殺了).
  - 넷째, 동사는 격 부여 능력이 없다. 즉 피동화된 동사와 비대격동사는 모두 대격을 부여할 수 없다. 그러나 동사 뒤에 격을 부여받는 명사성 성분이 있다. 다시 말해서, 동사 뒤의 종속명사는 일반적인 대격을 부여받을 수 없지만, 특별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
- 徐傑이 제시한 이 4가지 공통점 중 첫 번째, 두 번째 특징은 전반적인 중국어 보류목적어 현상에 완전히 부합하지 않는다. 네 번째 특징은 ‘격흡수’원칙(Case-Absorption Principle)과 Perlmutter(1978)의 비대격가설(Unaccusative Hypothesis), Belletti(1988)의 부분격(Partitive Case) 이론을 따른 것이다.
- 8) 沈家煊(2006:292) 재인용.

그는 ‘王冕’과 ‘張三’의 이동 동기가 격을 부여받기 위해서라고 보고, 격여과(Case Filter)와 의미역준거(Theta-criterion)를 근거로 논지를 전개한다. 격여과에 의하면 모든 외현적인 명사구는 반드시 구조격을 가져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격여과를 통과할 수 없다. 또한 의미역준거에 따르면, 각 논항은 오직 하나의 의미역만 가지며 또 각 의미역은 오직 하나의 논항에만 부여된다. 즉, 논항과 의미역은 일대일의 대응관계가 요구된다.

領主屬賓句와 보류목적어를 가진 피동문은 다음과 같이 위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킨다. 첫째, ‘死’는 비대격동사이고, ‘殺’은 피동화에 의해 대격부여능력이 흡수된다. 따라서, 격을 부여받을 수 없는 목적어가 주어위치로 이동하여 주격을 부여받게 된다. 둘째, 비대격동사는 근본적으로 그 주어에 의미역을 할당할 수 없고, 피동문 주어의 행위자 의미역은 피동성분에 의해 흡수된다. 따라서, 목적어 NP의 이동을 통해 주어에 의미역을 부여할 수 있게 된다. 즉, 격여과와 의미역준거를 준수하기 위해 이동이 발생하게 된다.

Belletti(1988)에 의하면 비대격동사는 대격을 부여하지 않고 부분격(Partitive Case)을 부여한다.<sup>9)</sup> 徐傑은 이를 근거로 보류목적어 ‘父親’에 부분격을 부여하기 위해 소유자가 이동해야 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王冕의父親’과 ‘張三의父親’은 한정성 명사구라서 부분격을 부여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중국어에 출현하는 보류목적어의 비한정적인 특징이 부분격과 유사하다고 보고, 보류목적어에 부분격을 부여하는 논문이 많이 발표되고 있다. 생성문법 연구에 따르면, 부분격을 획득하는 명사는 반드시 비한정적이며, 이것은 한정성 효과(Definiteness Effect)를 나타낸다. 따라서, 아래 예문 (3)에서 (5)의 보류목적어 ‘那匹馬’, ‘它’, ‘李四’는 한정적이기 때문에 수용될 수 없다. 보류목적어와 부분격이 비한정적

9) Perlmutter(1978)나 Burzio(1986)에 의해 제창된 비대격가설에 의하면 비대격동사는 심층구조에서 목적어에 대격을 부여할 수 없다. 이에 반해 부분격은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이 Belletti(1988)의 주장이다. Belletti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V 뒤에 나오는 NP는 두 종류의 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대격과 같은 구조격(Structural Case)이며, 나머지 하나는 부분격과 같은 고유격(inherent case)이다. 고유격이란 어휘부(Lexicon)에서 부여받는 격으로, 부분격이란 바로 이 고유격에 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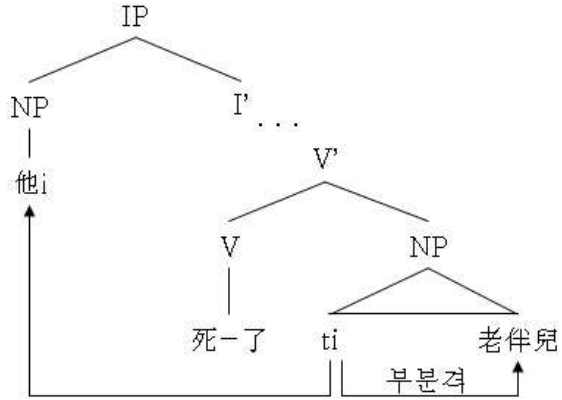
이라는 동일 현상에 주목한 鄧思穎(2004) 역시 보류목적어가 부분격을 부여받는다 고 본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1) 張三被嚇走了馬。  
장삼의 말은 놀라서 도망갔다.
- (2) 張三被嚇走了一匹馬。  
장삼의 말 한 마리가 놀라서 도망갔다.
- (3) \*張三被嚇走了那匹馬。  
장삼의 그 말은 놀라서 도망갔다.
- (4) \*張三被嚇走了它。  
장삼의 그것은 놀라서 도망갔다.
- (5) \*張三被嚇走了李四。  
장삼의 이사가 놀라서 도망가게 했다.

따라서, 徐傑은 소유자 이동을 통해 소유자 스스로에게 주격을 부여하고, 또한 이 이동으로 인해 더 이상 한정적이지 않은 보류목적어 ‘父親’에 부분격을 부여할 수 있다고 본다. 즉 이런 과정을 통해 격 부여 요구를 만족시키게 되는 것이다.

이지현(2006)은 “他死了老伴兒”과 같이 주어 NP와 목적어 NP가 소유의 의미관계가 있는 문장의 통사구조를 “他<sub>i</sub> [VP 死-了 [NP <sub>ti</sub> 老伴兒]]”이라고 가정한다. 또한 이와 같은 문법현상을 徐傑(1999)과 같이 소유자 인상이라고 보았다. 이지현은 V인 ‘死’가 타동사로부터 자동사로 변화한 능격동사(ergative verbs)<sup>10)</sup>이기 때문에 목적어 위치의 NP에 대격을 부여하지 못하고, 따라서 목적어 내의 NP 소유자 ‘他’가 격을 부여받기 위해 인상된다고 본다. 또한 이때 목적어 위치에 그대로 남겨진 피소유자 NP ‘老伴兒’이 어떻게 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가를 해결하기 위해 그녀 역시 부분격 개념을 도입한다. 이지현(2006:206)이 제시한 수형도는 다음과 같다.

10) 이지현(2006)이 제시한 능격동사는 비대격동사와 동일한 개념이다.



즉 위 수형도와 같이 능격동사 ‘死’는 목적어 ‘他的老伴儿’에 대격을 부여할 수 없기 때문에, 목적어 내의 소유자 NP ‘他’는 주어 위치로 이동하여 VP로부터 주격을 부여 받게 되며 목적어 위치에 그대로 남은 피소유자 ‘老伴儿’은 NP 자체가 어휘적으로 지니고 있는 고유격의 일종인 부분격을 부여 받게 된다.

徐傑(1999)와 이지현(2006)의 NP-이동가설에 근거한 인상구문과 부분격에 관한 해설은 그 보편적 타당성이 인정되나,<sup>11)</sup>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존재한다.

첫째,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은 소유자의 이동 동기이다. 사실 이동 동기가 소유자에 격을 부여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소유자의 이동은 실질적으로 ‘중복 격부여’와 ‘격충돌’을 야기한다. 왜냐하면 소유자 자체에 구조격, 즉 소유격이 있기 때문에 격부여를 위해 이동한다는 동기 자체를 상실하게 되

11) 이 같은 속성은 다음과 같은 Bruzuo의 일반화(Bruzuo’s Generalization)에 의해 정당화된다.

Bruzuo의 일반화:

- a. 외부 논항이 결여된 동사는 대격(unaccusative case)을 할당할 수 없다.  
(Bruzuo 1986:178-9)
- b. 대격을 할당할 수 없는 동사는 외부 논항을 의미역 표시할 수 없다.  
(Bruzuo 1986:184)

는 것이다. 만약 소유자가 이동한 후에 주격을 획득하면, 소유격에 주격이 부가되어, 중복 격부여와 격충돌을 야기하게 된다(潘海華·韓景泉(2005), 朱行帆(2005), 沈家煊(2006)).

둘째, 중국어에서 소유자는 일반적으로 명사구에서 이동할 수 없다(Huang 1984).<sup>12)</sup> (6)의 소유자 ‘張三’은 ‘張三(的)父親’으로부터 주체화될 수 없으며, (7)의 ‘那個人’은 ‘那個人(的)父親’으로부터 이동하여 수식어의 피수식어가 될 수 없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6) \*張三, 我看見了[ 父親].
- (7) \*[我看見[ 父親]]的那個人.

셋째, 일부 비대격구문과 피동구문의 주어는 근본적으로 소유자가 아니다.

- (8) 昨天他們發生了一件車禍。( \*昨天發生了他們(的)一件車禍)  
어제 그들은 차사고가 발생했다. 黃正德(2007:8)<sup>13)</sup>
- (9) 那塊肉被炒了青椒。( \*炒了那塊肉(的)青椒)  
그 고기는 피망과 같이 볶아졌다. 鄧思穎(2004:296)

따라서 소유자 인상 이동은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이론적 한계로 인해 NP-이동의 주요 동기인 격부여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게 된다. 또한 소유자 인상 이동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NP는 더 이상 비한정적이지 않게 되어 부분격 또한 부여받을 수 없게 된다.

12) 鄧思穎(2004)에서 재인용.

13) 이외에 비대격구문인 아래의 (1)-(4)는 주어와 목적어 사이에 적어도 관련사건 발생 이전에는 어떠한 관계도 없다.

- (1) 他家來了許多要飯的。그의 집에 많은 거지들이 왔다.
- (2) 中國出了一個毛澤東。중국에서 모택동이라는 인물이 나왔다.
- (3) 張三的兒子長出了兩顆門牙。장삼의 아들은 앞니 두 개가 났다.
- (4) 他起了一身雞皮疙瘩。그는 온 몸에 닭살이 돌아났다.

### 2.2 기저생성 가설

2.1절에서 살펴 본 NP-이동가설은 격이론의 제약조건을 위배하기 때문에 본 고에서 논하는 두 가지 구문을 설명하는 데는 적합하지 않다.

鄧思穎(2004:296)은 아래의 예문(10)(위의 예문(9) 재인용)에서 ‘那塊肉’와 ‘青椒’가 피동문의 주어와 목적어 위치에서 각각 생성된다면 상술한 문제가 해결 될 것이라고 본다.

- (10) 那塊肉被炒了青椒。  
그 고기는 피망과 같이 볶아졌다.

이동가설이 성립하려면 피동구문의 주어 위치가 비의미역 위치여야 한다. 그런데 아래 예문(11), (12)에서는 ‘故意’와 같은 주어 지향 부사(subject-oriented adverb)가 출현가능하다. 주어 지향 부사는 선택적 제약을 부과하여 목적어가 아니라 주어에 대해 서술한다. 따라서 주어 지향 부사의 출현을 통해 아래 예문 (11), (12)의 주어가 명사구 흔적으로부터 부여받은 순수한 피형체 혹은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피동문의 주어는 그 자체의 의미역을 스스로 부여받는 행위자 혹은 경험자이다(Huang 1999).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11) 張三故意被打了。  
장삼은 고의로 맞았다.
- (12) 張三故意被李四打了。  
장삼은 고의로 이사에게 맞았다.

또한 목적어가 출현하는 일부 자동사구문에도 부사 ‘故意’가 출현가능하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13) 張三故意掉了一個包。  
장삼은 고의로 가방을 떨어뜨렸다.

예(13)은 자동사구문의 주어도 주어 위치에서 기저생성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예라고 볼 수 있다(朱行帆 2005).

따라서, 비대격구문과 피동구문의 주어는 이동에 의해 도출된 피형체 논항이 아니라 원 위치에서 기저생성된 행위자 혹은 경험자 논항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기저생성된 주어의 의미역이 행위자인지 경험자인지, 혹은 이 두 가지가 다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이 자연스럽게 제기된다.

黃正德(2007)은 주어가 경험자가 되기 위해서는 동사가 반드시 비대격 계열에 속해야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비능격동사의 기초논항은 행위자이며, 주어는 경험자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비대격 계열에는 1항동사도 있고, 2항동사도 있는데,<sup>14)</sup> 전자는 피형체 혹은 대상을 그 내부논항으로 하고, 후자는 원인을 더하여 그 외부논항으로 한다. 그러나 때로는 피형체 위에 더해지는 논항이 원인이 아닌 경험자인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동사 ‘來’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형식에 들어갈 수 있다.

- (14) a. (等了半天) 終於來了一碗麵。 (대상 혹은 피형체)  
(한참을 기다려) 드디어 짜장면 한 그릇이 나왔다.
- b. 你來碗炸醬麵吧?    답: 謝謝, 我已經來過兩碗了。 (我=경험자)  
너도 짜장면 한 그릇 하지 그래?  
답: 고마워, 나는 벌써 두 그릇을 먹었어.
- c. 小二, 給我來碗炸醬麵。 (小二 = 원인)  
저기요, 짜장면 한 그릇 주세요.

영어로 옮기면 (a)의 ‘來’는 ‘come’이 되며, (b)에서는 ‘come to me(=I have)’가

14) 黃正德(2007:5)은 비능격 계열과 비대격 계열의 1항동사와 2항동사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비능격계열  
 1항: 笑, 哭, 飛, 跳, 吵鬧 등 동작을 나타내는 자동사  
 2항: 打, 罵, 吃, 批評, 欺騙, 讚美, 打勝 등 타동사  
 비대격 계열  
 1항: 來, 去, 是, 有, 死, 走, 出現, 發生, 躺着 등 존현동사와 자동의 開, 關, 沉, 搖, 嚇(了一跳), 氣死 등의 기동동사(inchoative verb)  
 2항: 타동의 開, 關, 沉, 搖, 嚇(了他一跳), 氣死(了李四) 등의 사역동사

되고, (c)에서는 ‘bring(=cause to come)’이 된다. 경험자와 원인은 두 개의 다른 논항이며 의미역계층(thematic hierarchy) 상의 순서에서 원인은 경험자보다 높고, 경험자는 또한 피험체나 대상보다 높다. 따라서 ‘來’가 내부논항과 외부논항 외에도 중간논항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바꾸어 말해 비대격동사 ‘來’는 1항이나 2항술어가 될 수도 있고, 또한 3항술어가 될 수도 있으며, 각각 존현구문, 경험구문, 사역구문을 구성한다. 그럼 아래의 예문을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 (15) a. 王冕七歲死了父親。  
왕면은 7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b. 張三又瞎了一隻眼睛。  
장삼은 또 한 쪽 눈이 실명됐다.  
c. 看守又逃了三個人了。  
간수는 또 범인 셋이 도망갔다.  
d. 昨天他們發生了一件車禍。  
어제 그들은 차사고가 발생했다.  
e. 他們公司又沉了一艘船，恐怕要撐不下去了。  
그들 회사의 배 한척이 또 가라앉아서, 아마도 버텨내지 못할 것이다.

이들 문장의 동사는 모두 전형적인 1항 비대격동사인데, 다만 동사 뒤의 피험체 논항 외에 문두에 또 하나의 명사구가 있다. 이 명사구는 내부논항이 아니다. 왜냐하면 (15a)에서 죽은 것은 ‘父親’이지 ‘王冕’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외부논항도 아닌데, ‘王冕’은 아버지의 죽음을 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문 (15)의 모든 문장은 모두 중간논항과 내부논항을 가진 2항의 비대격구문이라고 할 수 있다. ‘王冕’, ‘張三’, ‘看守’, ‘他們’은 논항구조상 모두 경험자이며, 통사구조에서 모두 표준적인 주어 위치를 차지한다. 또한 주어 위치에 도달하는 수단은 이동이 아니라 병합(merge), 즉 기저생성이다. 즉, ‘王冕’은 어휘적으로 선택된 뒤 직접 술어와 결합하여 전체 문장의 주어가 되며, ‘父親’과는 이동 관계가 없다.

“張三被殺了父親”과 같은 피동구문에서 ‘張三’ 역시 내부논항이 아니라 중간논항인 경험자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죽은 것은 ‘父親’이지 ‘張三’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외부논항도 아닌데, ‘張三’은 아버지의 죽음을 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피동구문 역시 비대격구문과 마찬가지로 중간논항과 내부논항을 가진 2항구문이라고 볼 수 있다. 즉 ‘張三’은 경험자를 나타내는 중간논항으로 문장의 주어 위치에서 기저생성된 후 직접 술어와 결합하여 전체 문장의 주어가 된다.

지금까지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王冕死了父親”과 “張三被殺了父親”에서의 주어 ‘王冕’과 ‘張三’이 경험자를 나타내는 중간논항으로 기저생성된 후 술어와의 결합을 통해 전체 문장의 주어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유사한 두 구조에 획일적으로 적합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문법 기제를 이용해야 할까? 이를 설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첫째, 비대격구문과 피동구문에서 주어의 기저생성을 유발하는 문법기제는 무엇인가?

둘째, 주어가 여러 의미역 중 경험자 의미역을 부여받는 것은 어떤 문법기제에 의한 것인가?

셋째, 부분격으로 해결될 수 없는 보류목적어현상은 어떻게 설명하여야 할까?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해하기 위해 기능범주의 일종인 경동사를 이용하여 분석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 3. 기능범주 분석

#### 3.1 경동사 가설

2장의 분석을 통해 현대중국어 비대격구문과 피동구문의 목적어 출현 현상을 GB이론의 격이론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이런 현상을 NP-이동 규칙으로 통합하여 설명하였지만, 사실 이런 설명은 중국어 언어 현상에 적합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상과 같은 언어현상은 어떻게 분석해야 할까?

생성문법에서 언어 변이의 범위는 지극히 제한적이어서 주로 기능범주<sup>15)</sup>로 한정되고, 언어의 통사적 현상은 기능범주의 속성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필자는 중국어 언어현상의 이러한 차이를 인식하고 설명하기 위해, 기능범주의 경동사 가설을 이용해 분석해보고자 한다.

경동사는 Jespersen(1909-49), Grimshaw(1997) 등의 용어로서 영어의 ‘claim’, ‘cough’, ‘look’ 등의 동사가 의미기능이 미약하여 ‘make a claim’, ‘give a cough’, ‘take a look’ 등과 같이 동사파생명사(deverbal nominal)의 복합표현으로 나타나는 경우를 말한다. 이와 같이 동사파생명사 앞에 나타나는 의미기능이 미약한 동사를 Jespersen 등은 경동사라고 하였다(서하석 2009:54). ‘경동사+동사파생명사’ 복합체에 대한 분석은 최소주의 이론에서 경동사 개념인 Larson(1988), Hale&Keyser(1991, 1993), Chomsky(1995) 등이 제안한 동사구 내부주어 가설(VP-internal subject hypothesis)<sup>16)</sup>과 경동사구 패각구조(light verb phrase shell, vP shell)의 근간이 되었다. Chomsky는 경동사 v를 도입하여 지금까지의 통사적 기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던 AGR을 제거하고, 외부논항이 VP내에 있다는 동사구 내부주어 가설을 수용하였다. 이와 함께 VP 위에 또 다른 vP를 가정한 Larson의 VP-패각구조를 수용하여, 상위의 VP를 vP로 대체한 VP-패각구조를 최소주의의 기본 절 구조로 사용하였다. vP의 통사적 가정은 외부논항의 존재와 목적격 사이에 상관적 관계(correlation)가 발생한다는 Burzio(1986)의 일반화

15) 기능범주에는 문장의 힘(force)을 나타내는 C와 시제(tense)를 표현하는 T, 그리고 경동사(light verb) v, 한정사구(determiner phrase)의 핵인 D가 있다.

(이홍배 2002/2003:81)

16) 문장의 주어는 자신의 심층구조 위치인 VP 내부 위치에서 표층구조 위치로 ‘인상(raising)’된다는 가설이다.

에 근거한다.

구가 절로 설명될 수 있는 범주는 CP, TP, vP 그리고 VP들로서, CP는 명시적인 절을 말하는 것이고, TP는 절에서 시간개념이 그 주된 기능이다. 그리고 기능투사 vP는 경동사를 핵어로 하는 최대투사구(maximal projection phrase)로서 행위(act)나 사건(event) 또는 상태(state)가 V-영역 안에서 그 값이 부여된다.

그리고 경동사 v에 Spec이 올 수 있는 것과 T의 SPEC위치가 추가적인 XP로 채워지는 현상 역시 일반적으로 확대투사원리(Extended Projection Principle, EPP)를 충족시키기 위한 통사적 현상으로 간주한다.<sup>17)</sup>

Chomsky(2001b)에서는 경동사 v가 타동사구문 (16a)뿐만 아니라 피동구문 (16b)와 비대격구문 (16c)에도 나타나며 항상 T에 의해 선택된다고 하였다.<sup>18)</sup>

- (16) a. John hit the ball.  
잔이 공을 친다.  
b. John was killed.  
잔이 살해당했다.  
c. John arrived late.  
잔이 늦게 도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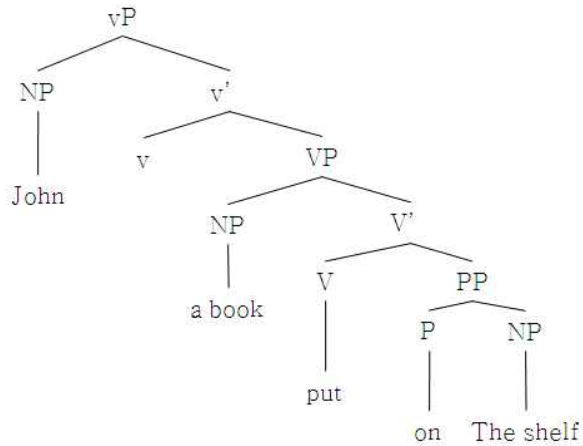
따라서, 본고에서 논의 중인 비대격구문과 피동구문인 “王冕死了父親”과 “張三被殺了父親” 역시 경동사 v를 설정하여 분석할 수 있고, 이것이 T에 의해 선택된다고 본다. 아래 3.2절에서는 이러한 경동사 가설을 적용하여 2.2절에서 제시한 의문들을 해결함과 동시에 이러한 분석이 Burzio(1986)의 일반화에 부합함을 밝히고자 한다.

17) EPP-자질은 비록 그 결과로 도출된 구조가 의미해석에 영향을 주지만 비해석성 자질이다(이홍배 2002/2003:89-90).

18) 이홍배(2002/2003:88) 재인용.

### 3.2 경동사 가설 적용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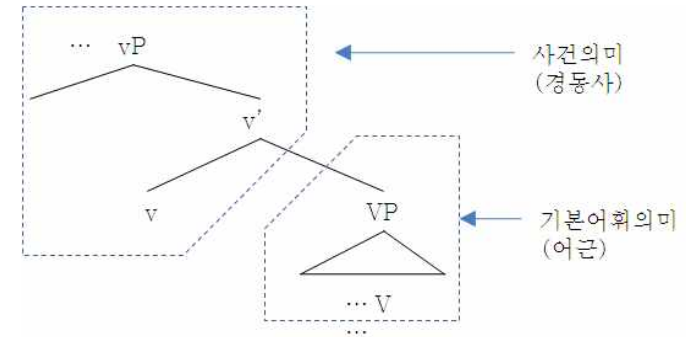
Chomsky(1993)에서는 Larson(1988)의 VP-패각구조를 받아들여 v는 음성형식과 의미내용이 없는 추상적인 동사이며, 마치 비어있는 위치와 같다고 하였다. “John put a book on the shelf”의 기저구조는 다음과 같다.<sup>19)</sup>



Huang(1997), 黃正德(2008)에서는 수형도 상단의 추상동사 v가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의미내용이 있다고 본다. 그는 경동사는 주로 사건의미(eventualities)를 나타내는데, 예를 들면 활동의 DO, 기동(inchoative)의 BECOME, 사역(causative)의 CAUSE 등과 같다고 하였다. 어휘분해(lexical decomposition) 이론에 의하면, 술어는 기본 어휘의미(예를 들면 행위, 상태 등의 의미)를 나타내는 어근과 사건의미를 나타내는 경동사의 두 개의 부분으로 분해될 수 있다.

19) 朱行帆(2005:225) 재인용. 朱行帆(2005)에서는 경동사와 동사의 범주를 나타낼 때, 대문자와 소문자의 구별 없이 사용하였다. 본고에서는 이 두 가지가 서로 다른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구분해야 한다고 보고, 대문자와 소문자를 구별하여 경동사(v)와 동사(V), 경동사구(vP)와 동사구(VP)로 수정하여 수록하였음을 밝힌다.

즉, 어근은 동사구 VP로 구성되고, 동사구 VP 상위에는 사건의미를 나타내는 경동사구 vP가 있다. 이것을 수형도로 나타내면 아래의 구조와 같다.<sup>20)</sup>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활동을 나타내는 예(17), 기동을 나타내는 예(18), 사역을 나타내는 예(19)는 다음과 같은 기저구조를 나타낸다.

- (17) 張三看這些書。 [DO [ROOT]]  
장삼은 이런 책들을 본다.
- (18) 張三的知識豐富了。 [BECOME [ROOT]]  
장삼의 지식이 풍부해졌다.
- (19) 這些書豐富了張三的知識。 [CAUSE [ROOT]]  
이런 책들이 장삼의 지식을 풍부하게 하였다.

필자 역시 경동사 v에 구체적인 의미내용이 있어서 전체 문장의 의미자질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따라서 본고에서 논의 중인 비대격구문과 피동구문에 ‘기본어휘의미’를 나타내는 어근 ROOT와 ‘사건의미’를 나타내는 경동사를 설정하고자 한다. 어휘분해 이론에 따르면 경험자는 경동사 EXPERIENCE(혹은 HAPPEN-TO)의 주어로 분석될 수 있다(黃正德 2007:8). 의미역이란 문장 내의

20) 鄧思穎(2008)에서 재인용.



통사범주에 명시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문장의 구조형상(structural configuration)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Hale&Keyser 1993).<sup>21)</sup> 따라서 이 경험자 의미역은 경동사 EXPERIENCE가 구성하는 vP에 의해 부여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고의 2.3절의 분석을 토대로 한다면, 논의 중인 두 구문의 주어는 중간논항인 경험자 의미역을 가진다. 따라서 이 두 구문에 출현하는 경동사의 의미자질을 EXPERIENCE로 설정하여 다음과 같은 기저구조로 나타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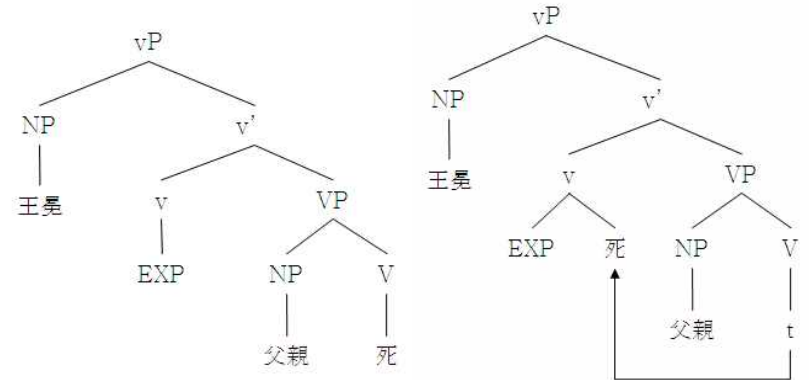
- (20) 王冕死了父親。 [EXPERIENCE [父親死了]]
- (21) 張三被殺了父親。 [EXPERIENCE [父親被殺了]]

그럼 (20)과 (21)의 구조를 바탕으로 각 구문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다. 첫째, “王冕死了父親”과 같은 비대격구문을 살펴보자.

朱行帆(2005)은 “王冕死了父親”에 음성형식이 없는 경동사 EXPERIENCE를 설정한다. 그는 “王冕的父親死了”와 “王冕死了父親”의 의미가 각각 “王冕的父親去世了”와 “王冕經歷了父親去世這件事”로 다르다고 보고, “王冕死了父親”에 음성형식이 없는 경동사 EXPERIENCE를 설정하여 다음과 같은 기저구조로 나타낸다.

[vP 王冕 EXPERIENCE [VP 父親死了]]

즉 이런 기저구조는 “王冕經歷了父親去世這件事”라는 의미를 표현하게 된다. 음성형식이 없는 경동사 EXPERIENCE는 보충어 ‘王冕’에게 외부 의미역인 경험자를 할당하고, 기본어휘의미를 나타내는 VP “父親死了”를 보충어로 가진다. 문장은 핵인 ‘死’가 인상되어 경동사 EXP와 병합되어 생성된다. 朱行帆(2005)이 제시한 수행도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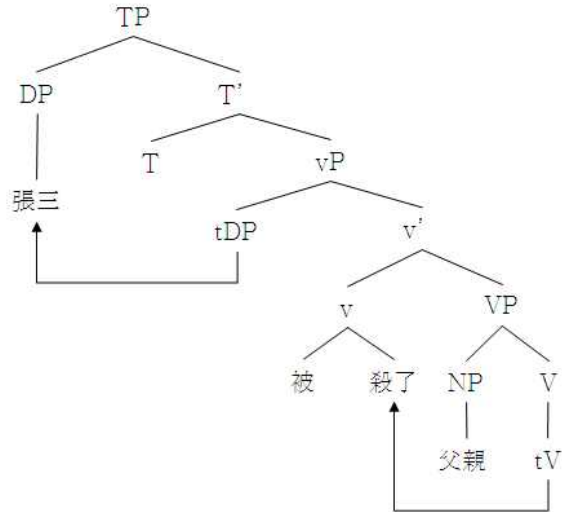


둘째, “張三被殺了父親”과 같은 피동구문은 위의 비대격구문과 달리 외현적으로 드러나는 경동사 ‘被’가 출현한다고 가정한다. 이 경동사 ‘被’ 역시 그것의 외부논항, 본고의 분석에 따라 엄밀히 구분하면 중간논항으로 경험자를 선택하고, 보충어로 기본어휘의미(어근)인 VP를 선택한다. 주어인 ‘張三’은 ‘父親被殺了’라는 하나의 사건을 경험하는 경험자이기 때문에 경동사 ‘被’의 의미 역시 EXPERIENCE라고 가정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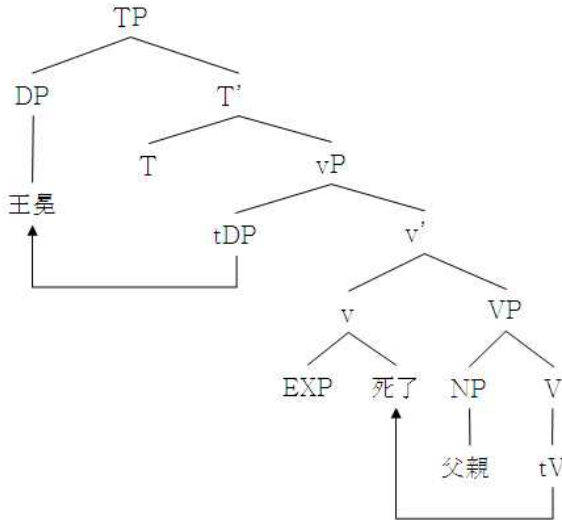
주어 ‘張三’은 2장 2절의 분석에 따라 기저생성된다. Larson(1988)의 VP-패각 구조에 의하면, VP 위에 경동사 v를 가정하는 그 의미적 동기는 외부논항이 완전동사 V가 아닌 v에 의해 의미역이 부여되어 동사의 직접논항이 아니라는 주장에 그 설득력을 부여한다. 따라서, 문장의 주어는 동사구 내부주어 가설에 의해 자신의 심층구조 위치인 vP의 지정어 위치에서 기저생성된 후 EPP-자질을 만족시키기 위해 TP의 지정어 위치인 [SPEC, TP]로 인상된다.

핵인 ‘殺’은 인상되어 경동사 ‘被’와 병합하게 된다. 이것은 경동사 v의 강성 V자질 때문에 VP의 핵인 동사가 반드시 그것과 인접한 위치로 이동하여 자질을 점검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수행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21) 이홍배 (2002/2003:83) 제인용.



“王冕死了父親”과 같은 비대격구문 역시 朱行帆(2005)의 이론을 바탕으로 이상의 논리를 적용하면 다음과 같은 수형도를 얻을 수 있다.



지금까지의 분석을 통해 2.2절 마지막 부분에서 제시한 의문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첫째, 주어는 동사구 내부주어 가설에 의해 vP 내에서 기저생성된 후, EPP-자질에 의해 TP의 지정어 위치로 인상된다.

둘째, TP의 지정어 자리로 이동한 주어는 T 내부의 경동사의 사건의미 EXPERIENCE와 어근의 기본어휘의미의 병합을 통해 생성된 vP에 의해 경험자 의미역을 부여받게 된다.

셋째, 영형식의 경동사 EXP 혹은 음성형식의 경동사 被를 핵어로 하는 vP는 최대투사구로서 이 vP 내부의 VP에는 NP와 V가 출현한다. 이때 V는 경동사 v의 강성 V자질 때문에 경동사와 인접한 위치로 이동하여 그것과 병합하게 된다. 반면, V의 이동 후 남겨진 NP가 바로 보류목적어이다.

#### 4. 맺는 말

지금까지의 분석을 통해 비대격구문과 피동구문인 “王冕死了父親”과 “張三被殺了父親”이 동일한 기제에 의해 생성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기존 연구에서는 이 두 구문의 ‘王冕’, ‘張三’과 ‘父親’ 사이에 의미적으로 소유 관계가 성립한다고 봄으로써, GB이론의 NP-이동가설을 토대로 한 분석이 시도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는 격이론에 위배됨을 본문의 분석을 통해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상과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분석을 시도하게 되었다. 여기에는 최소주의 이론에서 제시되는 기능범주의 일종인 경동사 가설이 사용되었다. 비대격구문과 피동구문의 주어는 동사구 내부 주어 가설에 의해 vP 내에서 기저생성된 후 EPP-자질에 의해 TP의 지정어 위치로 인상된다. TP의 지정어 자리로 이동한 주어는 T 내부의 경동사의 사건의미

와 어근의 기본어휘의미의 병합을 통해 생성된 vP에 의해 경험자 의미역을 부여받게 된다. 영형식의 경동사 EXP 혹은 음성형식의 경동사 被를 핵어로 하는 vP는 최대투사구로서 사건이 V-영역 안에서 그 값이 부여된다. 이 vP 하단의 VP에는 NP와 V가 출현하는데, V는 경동사의 강성 V자질에 의해 그것과 인접한 위치로 이동한 후 병합하게 된다. 반면, V의 이동 후 남겨진 NP가 보류목적어이다.

본 논문의 완성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향후 ‘被’의 경동사 자질 및 ‘被’ 뒤에 행위자가 출현하는 장거리 피동문의 현상과 본 논문의 분석 방법을 어떻게 조합해 나아가 할지에 대한 좀 더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하리라 보고, 이러한 고민은 향후 연구과제로 남겨두려 한다.

#### < 參考文獻 >

- 서하석(2009), 『최소주의 이론의 소절범주 분석』, 『현대문법연구』 Vol.55 49-67.
- 이지현(2006), 『중국어·영어·한국어의 소유자 인상 비교 분석』, 『中國語文學論集』 第37號.
- \_\_\_\_\_ (2005), 『현대중국어 被구문의 통사구조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이흥배(2002/2003), 『최소주의 통사론』, 한국문화사.
- 鄧思穎(2004), <작격화와漢語被動句>, 《中國語文》 第4期.
- \_\_\_\_\_ (2008), <漢語被動句句法分析的重新思考>, 《當代語言學》 第10卷第4期 308-319.
- 潘海華·韓景泉(2005), <顯性非賓格動詞結句的句法研究>, 《語言研究》 第25卷第3期.
- 黃正德(2007), <漢語動詞的題元結構與其句法表現>, 《語言科學》 第4期.
- \_\_\_\_\_ (2008), <從“他的老師當得好”談起>, 《語言科學》 第7卷第3期 225-241.
- 沈家煊(2006), <“王冕死了父親”的生成方式-兼說漢語“糝合”造句>, 《中國語文》 第4期.
- 溫賓利·陳宗利(2001), <領有名詞移位: 基於MP的分析>, 《現代外語》 第4期.
- 吳庚堂(2000), <漢語被動式與動詞被動化>, 《現代外語》 第23卷第3期.
- 熊仲儒(2003), <漢語被動句句法結構分析>, 《當代語言學》 第5卷第3期 206-221.
- 徐傑(1999), <兩種保留賓語句式及相關句法理論問題>, 《當代語言學》 第1卷第1期 16-29.
- 楊素英(1999), <從非賓格動詞現象看語義與句法結構之間的關係>, 《當代語言學》 第1卷第

1期 30-43.

\_\_\_\_\_ (2001), <“及物性”特徵與相關的四類動詞>, 《語言研究》 第3期(總第44期).

朱行帆(2005), <輕動詞和漢語不及物動詞帶賓語現象>, 《現代外語》 第3期.

Belletti(1988), The Case of unaccusatives, *Linguistic Inquiry* 19:1-34.

Burzio, Luigi(1986), *Italian Syntax: a government-binding approach*, Dordrecht: Reidel.

Chomsky, Noam(1995a), Categories and transformations, *The minimalist Program*(pp. 219-394), Cambridge MA: MIT Press.

Huang, C. -T. James(1997), *On lexical structure and syntactic projection*, In Feng-fu Tsao and H. S. Wang, eds, *Chinese Languages and Linguistics 3*. Taipei: Academia Sinica. 45-89.

\_\_\_\_\_ (1999), Chinese passives in comparative perspective, *Tsing Hua Journal of Chinese Studies*, 29, 423-509.

Larson, Richard(1988), On the double object construction, *Linguistic Inquiry* 19:335-391.

Perlmutter(1978), *Impersonal Passive and the Unaccusative Hypothesis*, In J. Jaeger et al., eds., *Proceedings of the Fourth Annual Meeting of the Berkeley Linguistics Society*,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原口庄輔·中村捷 編(1992), *Kenkyusha's Dictionary of Theoretical Linguistics*; 강명운·김기 (1998), 『츄스키 언어학 사전』, 한신문화사.

#### < 中文提要 >

現代漢語的非賓格動詞句“王冕死了父親”和被動句“張三被殺了父親”通過同一个句法机制生成。徐傑(1999)和이지현(2006)認為王冕和父親與張三和父親之間有着領屬關係，他們在GB框架里用移位來對這兩個句子進行了分析。但是移位却違背了格理論。而且依照黃正德的觀點來看的話，主語並不是移位生成的，而是在底層結構時就在主語位置上生成的。本文在最簡方案框架里用功能語類的輕動詞來對這兩個句子進行了分析，並認為非賓格動詞句和被動句主語是先在VP內部生成，然後接受EPP-特徵而移到TP的指定語位置上去的。主語的論旨角色是T內部的表示事件意義的輕動詞與表示基礎詞彙意義的詞根合并后才賦予給它的。在vP下面的VP里有NP和V，輕動詞是語法特征很强的中心成分，V必須移至其鄰接位置接受核查。V與輕動詞合并后所留下的NP就是保留賓語。

關鍵詞: GB理論, 最簡方案, 非賓格動詞, 被動句, 移位, Burzio定律, 功能語類, 輕動詞,  
VP內部主語假說, 擴展投射原則.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 간
2009.12.29	2010.1.30	2010.2.1	2010.2.8	2010.2.28